
부산지역 잡색놀이의 유형과 연희적 특성

-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중심으로 -

황경숙 / 부경대학교 강사

目 次

1. 들어가기	3. '가재도구 되팔기' 놀이의 연희적 특성
2. '가재도구 되팔기' 놀이의 유형과 전개양상	4. 나오기
1) 가재도구 되팔기	
2)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	참고문헌
3) '가재도구 되팔기'와 소유권 차지하기	국문초록
	Abstract

1. 들어가기

잡색놀이는 정초 각 마을에서 행하는 지신밟기의례에 병연되는 놀이로 주로 잡색들에 의해 연행되는 놀이를 말한다.¹⁾

지신밟기에서 잡색은 경계를 넘나드는 축제적 인물이다. 잡다한 인간군상을 상징하고 있는 잡색은 지배와 집주인 사이를 넘나들며 때로는 주인을 골탕 먹이기도 하며 때로는 주인과 흥정

1) 전라도 지역에서는 잡색들과 풍물패들이 함께 어울려 잡색놀이를 연행하기도 하나, 부산지역에서는 잡색들만이 참여하여 때로는 지신밟기의 제의적 의미를 놀이로 연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굿판을 보다 신명나게 하기 위해 소극이나 즉흥극 혹은 마임을 연행하기도 한다.

이끌어내기도 한다. 또한, 앞치배와 뒷치배 사이의 질서를 넘나들어 치배의 행렬을 벗어나기도 하고 원진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들어 제의적 금체에 구속되지 않기도 한다.

지신밟기는 풍물을 위주로 하는 앞치배-풍물패-의 놀이와 몸짓과 재담을 위주로 하는 뒷치배-잡색-의 놀이로 나눌 수 있는데, 앞치배의 연행보다 뒷치배의 연행이 규식의 강제성이 덜하다. 일정한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추는 흐트춤을 바탕으로 여럿이 어울려 추되 흥과 멋에 겨워 각자 춤을 추며 때로는 웃음을 야기 시키기 위해 희화된 동작을 재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각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거나 양반과 대결하여 양반을 희롱하고 풍자하는 등 극적 놀이를 연행하기도 한다. 이 모두 정해진 규식 보다는 현장성에 충실하면서 연행되어 즉흥적인 요소가 보다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잡색놀이는 연희 내용이 극적으로 다채롭게 전개되는 호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할 수 있겠으나, 제의적 본령에 충실하여 잡색놀음의 원형적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한편, 여타 지역과 다른 극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연희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로, 민중적 미의식의 전형적 구형대로 잡색놀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부산지역 잡색놀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간 부산지역 잡색놀음이 연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데는 무엇보다 부산지역 잡색놀음의 전승력 약화 현상에 따른 기초자료 부족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 호남지역 잡색놀음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는 편향된 연구풍토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부산지역 잡색놀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소루하나마 부산지역 잡색놀음을 관통하고 있는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를 중심으로 이 놀이의 유형별 전개양상과 연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신밟기는 당산제나 별신굿과 같은 여타 공동제의에 비해 놀이의 기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신밟기는 여타 공동제의에 비해 전승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 이제 지신밟기를 제대로 연행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신밟기가 각 마을 단위로 전승되지 못하고 민속보존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신밟기로는 ‘고분도리 지신밟기’·‘수영 지신밟기’·‘동래 지신밟기’·‘대리 지신밟기’ 등을 들 수 있다.

근래 지신밟기의 주축이 되는 풍물패와 달리 잡색놀음의 경우는 사정이 더 열악하여 간혹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지신밟기가 재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잡색놀음의 편성은 거의 조야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며, 전문적인 풍물패들이 마을 단위를 넘어 행하는 지신밟기²⁾ 역시 잡색놀음의 편성이 형식적인

2) 이들 집단은 전문적으로 풍물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연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래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정초에 이들을 청해 지신밟기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문화의 형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례를 전문적으로 대리해주는 민속문화의 상업화 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도시민속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지신밟기의 전승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문제 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각 마을 단위에서 지신밟기의 전통성을 충실이 담보하면서 전승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지신밟기의 전승기반이 변화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지역 잡색놀음의 원형을 재구하고 현전하는 잡색놀음의 연희적 특성을 올바르게 가름해 보기 위해서는 현전하고 있는 지신밟기는 물론 전승이 단절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구술자료 또한 폭넓게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고분도리 지신밟기’³⁾·‘수영 지신밟기’⁴⁾·‘동래지신밟기’⁵⁾·‘대리 지신밟기’⁶⁾

- 3) 지신밟기의 절차는 ‘당산굿→우물굿→대문굿→성주풀이굿→조왕굿→장독굿→곳간굿→정낭굿→소마굿간굿→용왕굿→판굿’ 순이다. [고분도리(서대신동의 옛 지명)는 그 예전 취락구조가 농어촌의 구조였기에 이 마을 지신밟기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풍어와 선원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용왕굿이 행하는 것이 주로 특징이다.]
- 4) 지신밟기 절차는 ‘당산제(송씨할매당→수영고당고사→만물샘고사→문굿)→한마당풀이→각 가정 지신풀이(성주풀이→조왕풀이→장독풀이→고방풀이→잡색놀이→대문굿)→대동풀이’ 순이다. [수영 지신밟기는 수영야류를 놀기 위한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야류계’에서 주관한다. 따라서 이 지역 지신밟기는 정초 벽사의례의 일환으로 행하는 여타 지역의 지신밟기와 달리 벽사진경을 도모하기 위한 정초의례로서의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수영야류 공연을 위한 사정 비용을 추렴하기 위한 걸림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 5) 지신밟기 절차는 ‘주산(主山) 지신풀이→당산(堂山) 지신풀이→샘[우물]풀이→각 가정 지신풀이 마당놀이: 대청(大廳)지신풀이→큰방 성주[成造]풀이→각방(各房)치장 풀이→조왕(籠王) 지신풀이→샘[우물]지신풀이→장독 지신풀이→도장[穀間] 지신풀이→마굿간 지신풀이→뒷간[便所] 지신풀이→삼짝[大門] 지신풀이→주신[酒神]’ 순이다.
- 6) 지신밟기 절차는 ‘당산지신밟기→우물지신밟기→다리지신밟기→마당지신밟기→성주지신밟기→조왕지신풀이→장독지신풀이→곳간지신풀이→소마굿간지신풀이→삼짝지신풀이→술풀이’ 순이다. [다리 지신밟기는 대리천 다리에서 행하며 천지평화와 홍수를 막아주길 기원하는 한편 다리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의

와 더불어 지금은 전승이 단절된 ‘죽림 지신밧기’⁷⁾도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재도구 되팔기’ 놀이의 유형과 전개양상

잡색놀이는 일정한 규칙에 의거해 진행되는 놀이-일종의 모의적 극놀이-와 현장상에 의거해 진행되는 현장적인 놀이-춤, 마임, 소극 등-로 대별될 수 있다.

잡색놀이⁸⁾ 중 극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놀이는 가재도구

안경을 기원한다. 술풀이 마당은 의례를 마친 후 행하는 판굿으로 상쇠가 이 술 한잔 목고 발걸음마다 꽃이 피고 말소리 마다 향내 나며 술이라도 생기면 목마를 때 쟁겨달라는 요지의 덕담을 한 후 “버꾸야 한 잔 먹었으면 신나게 한판 놀아보세” 라고 외치면 버꾸쟁이들이 나와서 버꾸놀이와 마당놀이를 펼친다.]

- 7) 지신밧기 절차는 ‘당산풀이 → 효자비풀이 → 성주풀이 → 조왕풀이 → 샘풀이 → 장독풀이 → 곳간풀이’ 순이다.
 8) 각 지역 지신밧기에 편성된 잡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역	잡색의 구성양상
고분도리	대포수·하동·사대부·각시·화주
구포대리	포수·하동·사대부·팔대부·각시
동래	포수·하동·사대부·각시·춘녀
죽림	포수·하동·사대부·양반·상놈·각시
수영	포수·하동·사대부·팔대부·각시·사령·문서잡이

부산지역 잡색 종류는 대동소이하나, 수영의 경우 잡색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영의 경우 수영야류를 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걸림이 주 연행 목적이기에 비롯된 현상으로 보이는데, 잡색 중 사령·문서잡이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하동’에 대한 성격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동의 한자표기도 달라 ‘花童’ ‘河童’ ‘下童’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기도 하고, 인물 성격에 상이한 해석을 하기도 한다. 화동을 花童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복색에서, 반면, 下童의 경우는 신분이나 나이를 암시하는 명칭으로 해석되나 河童의 경우는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잡색의 구성적 특성과 하동의 잡색놀

되팔기와 투전놀이 그리고 각시를 둘러싼 잡색들의 경합 놀이다. 이들 극놀이는 각기 독립적인 놀이가 병렬적으로 연행된다. 기보다는 상호 극적 연계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연행되는 놀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재도구 되팔기는 각 지역의 잡색놀이에서 공통적으로 연행되며, 투전놀이와 경합놀이는 지명마다 편차를 보이며 연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 대상 지역의 잡색놀이 중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근간으로 한 잡색놀이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재도구 되팔기’

① 지신풀이 중 조왕굿이 끝나면 포수가 부엌에 들어가 조리, 주걱 등을 총으로 겨냥하여 쏘는 흉내를 내면, 잡색들이 포수가 총으로 쏜 가재도구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액을 물리친 것이라 하며 주인에게 되판다. [고분도리]⁹⁾

①은 고분도리 지신밟기의 사례로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 단독유형이다.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출한 놀이 구성인데, 애초부터 그러했던 것인지, 전승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서의 역할과 성격을 통해 볼 때 下童이 바른 포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대리에서는 하동은 원래 평민이었으나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산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동은 잘난 체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동작이 주된 연희 동작으로 설정되고 잡색놀음에 나타나는 포수와 하동의 대립은 과거 계급사회에서의 신분적 갈등을 담는 것이라 하는데, 하동의 성격에 대한 규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9) 김귀엽(여,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2008, 12월 현지 면담조사

2)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

② 지신밟기패들이 지신을 풀이하는 동안 포수는 집안 곳곳을 돌며 가재도구들을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 하동과 상남 등이 포수가 총으로 겨냥했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내어와 마당에 펼쳐 놓는다. 지신풀이가 끝이 나면, 하동·상남·사대부·양반 등 잡색들이 둘러앉아 그 집 가재도구들을 판돈으로 하여 투전판을 벌린다. 투전놀이는 양반이 자신이 이겼다고 억지를 부리며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양반이 가져간 가재도구들은 다시 그 집 주인에게 돈을 받고 되팔며, 그 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원된다.¹⁰⁾
[죽림]

③ 풍물패들이 조왕풀이를 하면 포수가 부엌이나 장독간에서 총으로 솔뚜껑이나 장독뚜껑 등을 쏜 다음 이를 들고 나와 그 집 주인에게 흥정을 벌이며 되판다. 이 때 돈이나 술을 따로 얻어 내기도 한다. 놀이 중간에 포수·중·머슴·사령 등이 주인집 담 아래나 골목에 모여 각 가정을 돌며 추렴한 돈이나 재물을 판돈으로 하여 노름판을 벌인다. 이 때 각설이들이 놀음판을 구경하며 개평 달라 조르기도 한다. 노름판에서 돈을 딴 포수와 중은 함께 어울려 주막을 찾아 술을 마시며¹¹⁾ 돈을 잃은 머슴과 사령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러한 모습을 본 팔대부가 이를 호통을 치는데, 한편으로 사령¹²⁾은 문서잡이¹³⁾에게 놀음하여 판돈을 잃은 모습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한다.[수영]¹⁴⁾

10) 박상근(남, 조사당시 75세.), 김은배(남, 조사당시 72세.)제보, 2004년 6월-8월 면담조사.

11) 모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실제 성주판의 술을 마시기도 한다.

12) 사령은 머슴으로 놀이판에서 어른들의 심부름도 하고 큰 자루를 들고 다니며 거둬들인 곡식을 담아 메고서 다닌다. 늘 문서잡이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일을 시키는 문서잡이를 원망하며 들고 있던 자루를 내동이치며 익살을 부린다.

②는 죽림마을 지신밟기 사례로 ①의 ‘가재도구 되팔기’가 투전놀이로 확대되어 있다. ‘투전놀이’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동·상남·사대부·양반 등으로 이 때 가재도구를 훔친 포수는 참여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첫째, 훔쳐온 가재도구가 투전판의 판돈이 된다는 점이고, 둘째, 투전판을 벌인 후에야 비로소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되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가 단순한 오락적 놀이에 그치지 않고 가재도구의 갱신과 소유권의 재확립 등과 같은 제의성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복합유형이라 할 수 있다.

③은 수영 지신밟기의 사례로 이 역시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②와 같이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잡색들의 투전놀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투전놀이는 ②의 투전놀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곧 지신풀이 대상 집에서 훔쳐온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추렴한 돈이나 재물을 판돈으로 하여 노는 점이 다르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 의례적 성격을 띤 재물이라는 점에서 동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판돈이 한 가정에 국한된 성격을 띠는 반면 ③의 경우는 각 가정의 경계를 넘어 마을 단위로 확장된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전놀이의 연행적 편성이 ②의 경우는 지신풀이를 모두 끝낸 뒤 의례를 갈무리하는 단계에서 연행되어 일종의 판굿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③의 경우는 지신풀이 중간 중간에 임의적으로 편성되어 놀이판을 보다 흥겹게 유도하는 촌극적 성격을 강하게

13) 전곡(錢穀)의 물목(物目)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갓을 쓰고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있으며 놀이판에서는 글을 안다고 잘난 체하며 거들먹거린다.

14) 태덕수(남, 수영고적민속보존회 이사장) 2008, 12월, 2009, 3월 면담조사. 수영지신밟기와 관련한 내부문건을 함께 참조하였다.

떠고 있다 하겠다.

한편, ③에서는 ②와 달리 잡색들의 ‘투전놀이’가 독립적인 놀이로 확대되어 있다. 예컨대, 투전판의 승패가 분명하고 이에 따른 결과적 행위들이 오히려 투전놀이 과정보다 더 강조되어 극적 흥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각설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투전판에서 개평을 요구하며 또 다른 극적 갈등과 웃음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투전놀이가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와의 관련을 넘어서 독립적인 잡색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수영의 지신밟기가 야유계가 주동하여 야류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걸립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볼 때, 보다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해야할 필요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가재도구 되팔기와 소유권 차지하기’

④ 설쇠잡이가 대청 지신풀이를 부를 동안 포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격을 훔쳐 나와 주인 생원에게 그 주격을 판다. 액(厄)이 묻어나온 주격이라 병어리 시늉을 해야 복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 생원에게 주격을 팔고자 할 때, 거간꾼으로 하동이 나타나 포수 대신 값을 부르고, 포수는 하동이 부른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값에 팔지 않겠다는 시늉을 한다. 그렇게 하여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포수는 주격을 주고 주인 생원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받을 찰나에 사대부가 나타나 그 돈을 빼앗아 도망간다. 그러면 포수가 사대부를 쫓아가 병어리 시늉으로 투전도박을 벌이자고 한다. 투전도박을 하여 포수가 그 돈을 빼앗을 순간 하동이 나타나 그 돈을 가로채면, 포수는 각시를 데리고 와서 하동에게 각시를 넘겨주고 그 돈을 도로 찾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하동과 각시가 어울려 춤

추는 것에 질투를 느낀 포수는 다시 촌녀를 데리고 와서 각시와 촌녀가 춤을 추게 하고, 하동을 따돌린다. 이러한 촌극을 벌이는 동안 그 외의 잡색들은 제각기 허튼춤을 춘다.¹⁵⁾[동래]

⑤ 大方에서 풀이하는 동안 포수는 여기 저기 쏘다니다가 부엌에 가서 조리, 주걱, 냄비 등 부엌살림 몇 가지를 훔쳐 나와 하동에게 자랑한다. 하동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대부에게 넘겨서 주인에게 팔자고 제의한다. 포수가 이에 동의하여 사대부에게 조리와 주걱 등을 넘겨주면 사대부는 주인에게 가서 흥정을 하다가 그것을 팔아 버리고 돈은 슬그머니 가로챈다. 포수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하동에게 화풀이를 한다. 둘은 쫓고 쫓기다가 하동이 포수의 총구 앞에서 죽을 판에 이르자 "포수야 범 봐라"고 외친다. 겁쟁이 포수는 "어디어디"하면서 사지를 떨다가 기절하여 넘어진다. 하동은 넘어진 포수의 엉덩이에 손을 얹어 더듬다가 냄새를 맡으면서 구린내가 난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귀- 하고는 큰 기침을 한다. 기침 소리에 놀란 포수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하동을 잡으려 간다. 둘은 다시 쫓고 쫓기면서 장난을 친다.¹⁶⁾[동래]

⑥ 성주풀이를 시작하면 포수는 부엌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총으로 쏘아 훔친다. 훔친 가재도구는 포수가 가지고 있다가 조왕풀이가 끝나면 묻어 있을 지도 모를 액을 정화한 것이니 다시 사라 하여 주인에게 되판다. 이 때 주인이 포수에게 돈을 건네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하동이 포수의 돈을 탐내 포수의 돈을 훔쳐 달아난다. 포수가

15) 동래야류보존회, 1989, 『동래들놀이』, 268-269면.

16) 민족미학연구소, 박진주 선생 자료집 발간위원회, 1999, 『박진주선생자료집 1』, 53면.

하동을 잡으려 뒤 쫓지만 잡지 못한다. 그러면 포수는 사대부에게 달려가 하동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고 하동을 잡아 줄 것을 간청한다. 사대부가 그 청을 받아들여 하동을 잡아 포수에게서 빼앗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에 포수가 사대부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대부는 모른 척 하며 돌려주지 않는다. 억울한 포수는 사대부와 함께 놀던 각시를 찾아가 양심도 없는 사대부는 개천에 밀어 넣어 버리고 오늘 밤에 우리 둘이 함께 놀자 하며 각시를 데리고 떠난다.¹⁷⁾[대리]

④와 ⑤는 동래 지신밧기다. ④는 1977년에 박진주가 작성한 ‘지방문화재(무형)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⑤는 1989년에 동래야류보존회에서 발간한 『동래야류』 중 ‘동래지신밧기’ 항목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동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잡색놀음의 연행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러한 현상은 동래지신밧기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재현과정에서 원형설정과 관련해 빚어진 결과일 것이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사례의 진위여부를 넘어서, 두 사례 모두 가재도구 훔치기와 되팔기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승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여겨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④는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②·③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투전놀이’에 나타나는 연행적 요소들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④는 그 집의 가재도구 혹은 가재도구를 판 돈을 판 돈으로 하여 ‘투전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②와 동격이

17) 김학곤(남, 낙동민속보존회 회장)2008. 11월 면담조사, 2009. 3월 전화 인터뷰 조사.

나. 포수와 사대부가 판돈을 쟁탈하기 위해 ‘투전놀이’를 벌이게 되는 설정은 다르다. 또한 ③에서 ‘투전놀이’는 ‘투전놀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결과에 따른 극적 설정을 부가 시키는 방식으로 확대 시켜 놀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④에서는 ‘투전놀이’의 판돈의 소유권 분쟁을 통하여 극적 전환을 반복하면서 놀이를 확장시키고 있다. 즉,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강등구조는 판돈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각시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놀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것이다.

⑤는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앞의 ①·②·③에서는 가재도구를 되파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홍정’과정이 극적 재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흠쳐온 가재도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놀이가 부가되어 오히려 놀이적 요소는 흠쳐 나온 가재도구의 행방에 맞추어져 있다.

⑤에서는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하여 벌이는 ‘투전놀이’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가재도구를 판돈의 소유권을 두고 잡색들 상호간 대립과 쟁투가 극적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소유권 분쟁은 현실세계의 소유권 분쟁-포수와 사대부의 대립은 계급적 갈등을 그 근저에 깔고 있다.- 으로 확대 해석되어 극적 재미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쫓고 쫓기는 포수와 하동의 대립양상은 소극(笑劇)적 요소를 가미하여 놀이판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끌고 있다.

⑥대리 지신밟기는 동래 지역의 사례와 대동소이하다. 가재도구를 판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극적 주요 갈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의 흐름이 각시에 사이에 두고 포수와 사대부의 대립 구도로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대리 지신밟기와 동래 지신밟기

의 문화적 수수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으로 각 지역 지신밟기의 전승과정을 통해 보다 엄밀히 검토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부산지역 잡색놀이는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근간으로 제의성과 놀이성이 확대되면서 일종의 잡색극으로 발전 분화해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산지역 잡색놀음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가재도구 되팔기’는 전라도 지역 지신밟기의 일광놀이 혹은 도둑잡이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 잡색놀이 연구에서는 ‘가재도구 되팔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부산지역의 ‘가재도구 되팔기’와 연계된 ‘투전놀이’는 그간 우리나라 잡색놀음의 유형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일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⁸⁾ 기왕에 제기한 잡색놀음의 유형을 굳이 적용시키고자 한

18) 김익두는 우리나라 잡색놀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 바 있다. ①양성놀음형 : 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분포. ②투전놀음형 : 미확인. ③군사놀음형 : 호남지역 서부 평야지역(호남우도)에 분포. ④양성-투전놀음 : 영남 남부지역에 분포. ⑤양성-군사놀음형 : 호남 일부 지역(전남 영광)에 분포. ⑥투전-군사놀음형 : 호남지역 동부 산간지역(호남좌도)에 분포. ⑦양성-투전-군사놀음형 : 미확인. 이 중 ②투전놀이형: 미확인 유형에 대해 “양성놀이는 풍요를 기원하고 성적·사회적 억압을 승화할 수 있고, 군사놀이는 외부의 적이나 전쟁에 대비해 공동체의 정치·군사적 협동 단결을 기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전놀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찾기 어렵다. 이 모티브가 독자적으로 나타나려면 좀 더 본격적인 풍자나 해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데, 풍물굿의 기본성격상 이러한 전개는 불가능하다.”라 하여 투전놀이가 부정적 사회문화라는 점을 들어 실존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익두, 1998, 한국 풍물굿의 ‘잡색놀음’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387면.) 이러한 견해는 지신밟기에 병연되는 판굿의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를 간과한 결과로, 판굿의 본령은 지신밟기의 제의적 의미를 극적으로 풀어내는 드로메나로서의 기능에 근원하고 있음을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면 부산지역의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는 제한적으로나마 ‘투전놀이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죽림마을의 경우 투전놀이의 주요 모티브가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고려하고, 각 잡색놀이 유형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때, 종래의 ‘투전놀이’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부산지역 잡색놀이의 새로운 유형설정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보다 생산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재도구 되팔기’는 독립적 유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죽림·수영·야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있는 ‘투전놀이’역시 ‘가재도구 되팔기’와 같이 개별적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가재도구 되팔기-투전놀이’와 같이 복합적 독립 유형으로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④·⑤·⑥의 사례에 나타는 하동과 포수의 갈등의 회극적 전개과정은 밀양 지역의 잡색놀이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정형호의 논저 『농악』에 수록되어 있는 밀양지역의 잡색놀이의 연희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포수 · 하동 · 사대부 세 사람의 잡색놀이는 보통 지신밟기를 할 때 하며,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전하는 것을 농악꾼들이 촌극으로 나타낸다. 하동이 대포수가 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돈이 탐나서 투전을 하지고 제의한다. 그리하여 투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하동이 저서 돈을 빼앗기게 된다. 하동은 빼앗겼던 돈을 찾으려고 거짓으로 “호랑이 왔다”고 고함을 친다. 놀란 대포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동은 빼앗겼던 돈을 훔쳐서 달아난다. 나중에 호랑이가 오지 않은 것을 안 대포수는 하동을 잡으러 다닌다.

하동은 붙잡힐 듯하면 “호랑이 왔다”고 고향쳐서 위기를 모면하곤 한다. 결국에는 대포수가 돈을 찾아 사대부에게 상납한다. 사대부는 그것을 못 받은 채하면서 점잖게 춤만 추고 다닌다.¹⁹⁾

위의 내용에 준한다면 밀양지역 잡색놀이에서 하동과 대포수의 갈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포수의 돈을 탐낸 하동이 결국에는 자신의 돈만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 박진태는 하동과 대포수의 갈등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 모순’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한 놀이로 해석한 바 있으나, 갈등의 발단이 하동의 욕망에서 비롯된 점, 욕망의 실현을 위해 하동이 투전놀이를 먼저 제한한 점을 통해 볼 때, 박진태의 해석은 민중주의적 시각에 경도되어 하동의 욕망을 지나치게 미화한 결과라 생각된다.²⁰⁾

밀양지역에서 행해진 잡색놀이 관련 기록은 우선, 잡색놀이가 연행되는 시, 공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다음으로 연행의 주요 모티브가 되는 ‘투전놀이’의 대상물 즉, ‘대포수의 돈’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밀양과 동래의 경우 하동과 대포수의 갈등 원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동이 대포수를 따돌리는 연희내용은 두 지역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지역의 상호 영향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인데, 종래의 자료만으로는 부분적 영향(오락적 요소)에 국한되는 것인지, 경남지역의 유형적 특징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속단할 수 없다. 경남지역 잡색놀이의 형성과정과

19) 정병호, 1994, 『농악』, 열화당, 98면.

20) 박진태, 1998, '농악대 잡색놀이의 연극성과 제의성', 『한국 민속극 연구』, 새문사, 218면.

유형적 특징을 올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밀양지역의 잡색놀음에 대한 보다 정치한 조사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죽림·수영·동래는 각기 가락오광대·수영야류·동래야류의 발원지이며, 현전하는 가면극의 형성과정의 한 층위를 이루는 군나와 관아나 등 나문화의 전통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형성 전승되어온 지신밟기(민간나례)와 가면극과의 연희적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지신밟기와 가면극의 연희적 상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예비적 작업의 일환으로, 앞의 논의 결과에 준해 상호 연희적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죽림마을의 잡색놀이의 주요 모티브인 투전놀이와 가락오광대²¹⁾의 ‘노름꾼 마당’²²⁾과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

21) 가락오광대의 놀이마당은 ‘중마당’, ‘노름꾼마당’, ‘양반마당’, ‘영노마당’, ‘영감마당’, ‘사자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노름꾼1. “쉬-”(음악과 춤은 그친다) “오늘 우리, 여기서 김해 가락꼬은, 마산 꼬은. 부산꼬은, 동래꼬은해서 노름 한 판 놀아보자.” / 일동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노름꾼1 (투전을 나눠 준다.) / 일동 (투전을 분배받고, 노름을 한다.) / 노름꾼2 “오늘 재수 더럽기(게) 없다.” / 노름꾼4 “어따 낚발 없네. 죽었다.” / 노름꾼3 “얼씨구 오늘 재수 좋다. 수꿍이 제일 많으니, 내가 이길 수밖에.”(하고는 “좋다! 좋다! 기분좋다!”하면서 한바탕 춤을 덩실덩실 추고는, 노름판으로 가서 노름을 계속한다.) / 어딩이, 무시르미 (어딩이는 거지 복색에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등에는 아들 무시르미를 업고 나오는데, 반신불수라 절룩거리면서 나온다. 또 무시르미는 머리에는 흰꼬깔을 쓰고 손에는 ‘강남서신사명(령)기’라고 쓴 종이로 만든 기를 들고 나오는데, 천연두를 앓는 아이다. 어딩이가 무시르미를 업고 무대 한가운데에 나와서 무시르미를 내려놓으면, 이때 세마치장단이 타주된다. 두 사람이 이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추고는, 어딩이만을 노름꾼들이 노름하는 데로 가서 선다.) / 어딩이 (노름꾼들을 보고) “개편 좀 도!” / 노름꾼1 “개편 없다. 저리가라, 재수 없다.” / 어딩이 (다른

음과 같다.

노름꾼 마당은 노름꾼들이 투전놀이를 하고 있을 때 절름발이인 어딩이가 천연두를 앓고 있는 아들 무시르미를 업고 나와 개평을 달라고 하나 거절당하자 투전놀이판의 판돈을 훔쳐 도망치다 포졸에게 붙잡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마당’은 가산오광대와 진주오광대의 ‘문둥마당’과 유사하나, 가락오광대의 경우 문둥이 대신 노름꾼이 등장한다는 점과, 노름판의 노름꾼 대신 판돈을 훔쳐 달아난 어딩이가 응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³⁾ 이러한 특성에 대해

노름꾼에게 가서) “개평 좀 도”(하면서 노름꾼을 밀어버린다.) / 노름꾼2 “이기 뗏이고 재수 없구로 저리 꺼져라.”(하면서 발로 차버린다.) / 어딩이 (개평을 못 얻겠으므로 눈치를 보다가 노름판에 놓여진 돈을 휘몰아 가지고 도망을 친다.) / 노름꾼 일동 (서로 서로 의심하다가 어딩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짐작하고 이리저리 찾으러 다닌다.) / 어딩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이리저리 도망을 치며 다닌다.) / 노름꾼1 (어딩이를 붙잡아) “야 이놈아 니가 가면 어데 갈기라꼬?”(하면서 노름판으로 잡아 온다.) / 노름꾼2 “야! 이놈아 우리 돈 내 놓아라.” / 어딩이 “돈 없다.” / 노름꾼2 “우쨌노?” / 어딩이 “아늘 손님 앓는 데 다 썼다.” / 노름꾼3 “이런 멀쩡한 놈 보게” / 포졸(문에는 흑색 등걸이를 걸치고, 머리에는 흑색 빙거지를 쓰고, 손에는 포승을 쥐고 나와) “남의 돈 훔쳐가는 도적놈은 잡아간다.”(하고 포승을 질러서 붙잡아 간다.) / 어딩이 “노름 헨 놈들은 안 잡아가나?” / 포졸 “너그들 노름했나?” / 노름꾼 일동 “노름 안 했소, 돈 놓고 돈 목기 했소.” / 포졸 “돈 놓고 돈 목기는 죄가 아니다.”(어딩이를 보고) “가자.”(하고 데리고 나간다.) / 노름꾼 일동 (긋거리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춘다.) (김해민속예술보존회, 2004,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157-159면)

- 23) 문둥광대. 5인. (서로 모여 무엇을 협의하는 듯하더니 큰 목소리로) “일기도 좋고 다섯이 모인 김에 진주꼬은, 단성꼬은, 마산꼬은, 통영꼬은-----각인고 해서 땅땅구리 도박하자. 도박하자.”(한 장소에 같이 앉는다)---- “주의하자.”----- (여러 말을 연속해서 웃기는 겸, 도박하는 형용을 낸다) “끝수가 많다. 이겼다.” (서로 승부를 다투어 싸움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아담 난리가 난 것 같다.) / 어딩이.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에 욕심이 난듯이) “애해!”(하면서 도박장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흥을 낸다) (달아나는 것을 문둥광대가 잡으려 한 까닭으로 에워싼 구경꾼 속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닌다. 문둥광대는 잡는 채하면서도 어딩이를 부르면서 속히 잡지는 않고 이모양 한

박진태는 가락 오광대의 ‘노름꾼 마당’은 도박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도둑질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므로 엄벌하여야 한다는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²⁴⁾ 노름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정서는 선창가, 장터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을 위한 위락 산업이 주 소득원이 되었던 죽림마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그 개연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²⁵⁾ 그런데, 탈놀이가 마을곳의 일환으로 연행되었다는 사실²⁶⁾을 환기해 볼 때, 이 놀이마당의 보다 본원적인 형성 배

참 달음질하다가, 대답없는데 화를 내어서 나중에 잡는다.) / 문동광대. (어당에게) “너 돈 우쨌냐?” / 어당이. “아들 손님 구하는 데 쨌다. 나는 반신 불수.” / 문동광대 1.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자.” / 문동광대 2. “안된다.” / 문동광대 3. “다 주었뿌자. (서연호, 1989, ‘진주오광대 대본’, 『야류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104면.)

24) 박진태, 앞의 책, 297-298면.

25) 죽림마을은 농업이 발달한 곳이지만 이와 아울러 조세곡물을 수납하였던 해창(조선후기 1649-효종 즉위년에 김해부사 박경지가 해창을 세워 중앙으로 조세곡식을 수납하였다.)과 서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죽림과 강동의 덕도를 연결하던 죽림 도선장이 있었던 곳으로 김해 지역의 수운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1934년 녹산수문이 생기기 전까지 이곳은 낙동강을 따라 밀양, 진주, 삼량진 등지로 항해하는 어선, 상선, 짐선 등이 거처가는 관문이었다.

26) 죽림마을의 마을곳 연행 절차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제시해 상당한 혼선을 빚어 왔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주로 놀았는데, 동제가 끝나면 탈꾼들은 마을의 재력이 있는 집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찬조와 향응을 받으며 공연했다. 잭이를 샅세운 탈꾼들이 큰 집의 마당에 이르면 먼저 한바탕 마당놀이를 했으며, 이어서 탈놀이판을 벌였다. 판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셋굿 성주굿 조왕굿 장독국 뒤지굿(꼬방굿) 등 지신밟기를 해주었다.(서연호, 1989, 『야류오광대탈놀이』, 열화당, 57면.) ○연회는 정월 대보름에 하였다. 죽림리에서는 상원에 탈놀이를 하기 위해서, 정월 초하루부터 가가호호 다니며 걸립(乞粒, 지신밟기)을 하여 경비를 조달하는 한편, 가면을 만들고 연습하였다. 대보름날에는 당산제를 모시고 낮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를 하였으며, 밤에는 마을의 태평안녕과 벽사진경을 바라는 탈놀음을 하였다. (강용권, 1999, 『부산지명총람』 제5권-강서구편-, 부산광역시 편찬위원회, 355면.) ○죽림리의 마을곳은 음력 초닷새에 당산제 -당산나무는 포구나무이고, 당집은 없으며

경으로 이 지역에서 형성 전승되어온 민속제의와 민속연희의 전통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논급한 바, 노름판은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한 놀이문화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제의적인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포졸이 노름판을 배회하면서도 통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름판의 질서를 깨뜨렸다하여 어딘가를 포박하는 것은, 노름판의 제의적 성격을 통해 볼 때, 보다 큰 대의에서는 마땅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가락 오광대의 포졸탈은 흥백탈이다. 음양의 두 세계가 공존하는 상징성을 띠며 신(神)탈로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락오광대의 노름꾼 마당은 판굿의 투전놀이를 바탕으로 한 편으로는 제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노름판의 질서를 깨트리 고자 하는 이와와 갈등구조로 확대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노름꾼과 소외받는 민중의 대립구도로 변개되면서 모순적 현실을 강화시켜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신은 여신이다.- 를 지내고 보름까지 걸립을 치고 저녁에 보름달이 뜨면 선창가에서 오광대를 논 다음 달집태우기를 하고 걸립 때 쓴 고깔을 태우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박진태, 2004, ‘김해 가락오광대의 지역문화적 특성- 유래담·대본탈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294면.) 그런데, 발표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마을의 마을굿의 연행절차는 정초부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 전날까지 ‘지신밟기’를 행한 뒤, 정월 대보름에는 ‘당산제 → 줄다리기 → 달집태우기 → 오광대’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졸고, 2004, ‘죽림마을의 민속문화와 김해 가락오광대’,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105-154면.) 이를 통해 볼 때, 가락 오광대 연희는 정월 대보름날 마을 수호신에 대한 제의와 풍요를 도모하고 벽사진경을 피하는 세시의례를 행한 후 지역민의 화해와 통합을 꾀하는 축제의 장을 형성하여 마을굿을 실질적으로 종결짓는 의미로 연행되었다 할 수 있다.

반면, 수영과 동래의 경우 죽림마을과 달리 현전하는 잡색놀음과 가면극에서 직접적인 연희의 유사성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잡색놀음에 나타는 연희적 지향성과 가면극에 내재해 있는 연희적 지향성의 상관성만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가면극이 독립된 연행으로 형성 전승되어 오면서 가면극으로서의 독자적 극적 구성원리에 보다 충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수영 지신밟기의 잡색놀음에 나타나는 투전놀이 모티브는 죽림과 대비해 오락적 요소가 한층 더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투전놀이가 가재도구 되팔기의 연장으로 연희되는 것은 죽림과 궤를 같이하나, 투전놀이를 행하는 장소가 은밀한 놀이로서의 성격을 암시하는 담 아래, 골목길 등으로 새롭게 해석된 대목이나 각설이가 등장하여 개평을 요구하는 대목이 그러하다. 이는 오광대의 노름꾼 마당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는데, 정작 수영야류에는 노름꾼 마당이 없다.

대신 수영의 경우는 잡색들의 종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극적 구성이 보다 내밀하게 구성되어 투전판의 결과에 따른 극적 해결구조가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대립갈등구조를 짜임새 있게 전개하여 극적 완결성을 꾀하는 이러한 연희적 특징은 갈등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수영가면극의 미학적 구성원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영지역 연희담당층들의 연희적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래 지신밟기의 잡색놀음은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를 근간으로 하되, 상당부분의 연희는 주변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인 하동(말뚝이와 극적 인물 성격이 유사함)을 부각시켜 새로운 질서를 양도하는 포수를 역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동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④와 ⑤와 같이

다양하게 놀이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대부의 위선을 들추고 여성과 남성의 애정관계(극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함)의 갈등을 놀이화하기도 한다. 즉, 동래지방의 잡색놀음은 ‘가재도구 되팔기’의 제의적 모티브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인물들을 개입시키면서 보다 세속적인 극 놀이로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주목할 것은 갈등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대결이 대체적으로 종국에는 무화되거나 화합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극적요소를 반복적으로 변형시켜 놀이를 확대시켜나가는 놀이적 역량과 인물의 제의적 역할보다 인물의 현실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적 소재로 끌어내리는 세속화 과정, 그리고 화해와 통합의 논리로 극을 종결짓는 미학적 구성 원리는 동래지역 연희 담당층들의 연희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영과 동래의 잡색놀음에서 나타나는 상호 차별화되는 연희적 지향성이 수영야류와 동래야류의 형성과정에 내재적 동인으로 작용하여 각기 다른 독자적인 연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재도구 되팔기’ 놀이의 연희적 특성

부산지역 잡색놀이 중 ‘가재도구 되팔기’는 때로는 ‘가재도구 되팔기’가 독립적 유형으로 연행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는 이에 ‘투전놀이’나 ‘소유권 차지하기’와 같은 대결 구조 유형과 복합되는 복합유형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연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

브의 상징적 의미와 내재적 기능 규명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의 연희적 성격을 굿-지신밟기-의 맥락에서 밝혀보기 위해서는 이 놀이 유형의 연희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재도구 되팔기’놀이는 다른 잡색놀이와 달리 고정된 연행상황 속에서 연행된다. 앞 장에서 제시한 각 지역 잡색놀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놀이는 각기 조왕풀이·성주풀이·대방풀이 등과 같이 지신풀이가 행해지는 동안에만 연행되며, 특정 가신신격-조왕신-과도 일정정도 연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잡색놀음은 일종의 제의의 본령을 극적으로 구현하는 드로메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즉, ‘가재도구 되팔기’는 가신에 대한 본격적인 의례가 행해진 후 연행되어야 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조왕풀이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가재도구 훔치기가 지신풀이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 한다.

‘가재도구 되팔기’는 가재도구가 원래의 공간(소유자)에서 이탈 한 뒤 다시 본래의 공간(소유자)으로 재 편입 되는 놀이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 가재도구는 실제 연행에서는 특정 가재도구(주걱, 솔뚜껑 등)로 제한되지만 그 의미는 각 가재도구의 실제적인 기능을 넘어 그 집의 일부로서 집 공간에 대한 환유라 할 수 있다.

포수가 가재도구를 총으로 쏘는 행위는 과거의 묵은 액과 묵어 있을 지도 모르는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사의례의 의미이며, 포수가 재액을 물리친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되파는 것은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한

다. 즉, ‘가재도구 되팔기’는 기존의 공간(각 가정에 한함)을 해체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공간의 통과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곧 각 가정의 재액초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의 의례적 본령에 다름 아니다.²⁷⁾

동래의 경우 포수의 벽사자로서의 원래적 특성이 약화되어(다른 지역에서는 포수가 총으로 가재도구를 쏘아 가재도구와 관련된 기존의 질서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래에서는 포수가 총을 쏘지 않고, 직접 가재도구를 훔쳐 기존의 공간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나타나고 있어 제의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포수가 훔친 주격을 ‘액이 묻어나온 주격’이라 하고,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병어리 시늬’를 해야 한다는 ‘금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더불어 가재도구를 되판 돈의 흐름 즉, 궁극적 소유자 설정이 다른 지역과 달리 포수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유형의 제의성을 구현하는 보다 원초적 형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래 지신밟기 관련 자료인 ④와 ⑤에서는 가재도구를 되팔아 생긴 재물의 연희적 소유자에 대해 ④에서는 사대부가 ⑤에서는 포수가 궁극적인(놀이에서) 돈의 소유자로 설정되어 있다. 문제는 지신밟기 연행에서 사대부와 포수가 차지하는 위상이다. 현전하는 동래 지신밟기의 경우 사대부는 여타 잡색들과 달리 지신밟기패의 대표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⁸⁾ 따라서 ④에서 사

27) 지신밟기는 당산신을 맞이하여 각 가정을 돌며 가신을 위무하는 동시에 재해와 질병의 근원이라 관념되는 잡귀 잡신을 몰아내어 재해와 재앙을 막고 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벽사진경 의례로 그 전통은 고대 우리의 전통적 벽사의례인 매약에 근원을 두고 있다.

28) 주인이 문을 열면 하동과 포수가 먼저 들어가서 집안을 두루 살핀다. 이어 사대부가 들어서면 주인이 공손히 영접하면서 인사절을 한다, 이때 하동이 우루

대부가 돈을 소유한 것에 대해, 포수가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하동에게 분풀이하는 양상은 잡색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극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⑤에서는 사대부가 돈을 가로채자 포수가 투전놀이를 제안하여 돈을 되찾는다. 흥미로운 것은 포수가 사대부에게 투전놀이를 제안할 때 여전히 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확대 해석해 보면 포수와 사대부의 투전놀이 역시 죽림마을과 같이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기 위해 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⑤에서는 ④과 달리 포수가 사대부와 하동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돈의 소유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포수와 사대부의 위상이 전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동래 지신밟기에서 잡색들의 위상과 기능을 통해서 볼 때는 적어도 그러하다.

그런데, 과연 포수와 사대부의 위상이 애초부터 그러했던 것인가? 우리 고유의 민간 나례라 할 수 있는 지신밟기가 고대 우리 전통 벽사제무인 매악-武舞-에서 근원한 것이라는 점과, 제한적이긴 하나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지신밟기패를 이끄는 수령(사제자)으로서의 포수(대포수)의 면모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²⁹⁾, 현전하는 부산지역 지신밟기에서의 어릿

루 달려나와 사대부 앞을 가로 막으며 주인의 절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대부의 부채에 면상을 얻어맞는다. 사대부가 주인과 인사절을 주고받으면 밖을 향하여 들어오라는 신호를 한다, 지신밟기 기를 선두로 일행 전원이 들어오면 마당놀이가 시작된다. 굿거리 춤장단에 맞춰 마당을 돌면서 신나게 춤춘다. 지신밟기 기는 대청앞에 세워둔다, 주인은 마당놀이를 할 동안 고사상 준비를 한다, 고사상은 쌀을 담은 그릇에 양초를 꽂은 것 둘, 냉수 한 그릇, 마른 명태 한 마리 그리고 약간의 돈을 엮는다. 대청마루 끝에 초석을 깔고 그 위에 마련된 고사상에 놓이면 전원을 대표해서 사대부가 간단한 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대청 풀이가 시작된다. (박진주, 1999, 앞의 글, 59-60면 참조.)

광대로 전락한 포수의 위상은 지신밟기의 세속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⑤에서의 포수의 역할은 보다 원초적 형태일 개연성은 크다 하겠다.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유형은 투전놀이의 판돈의 성격에 따라 다시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 ‘가재도구를 되판 재물을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가재도구 되팔기와 투전놀이’유형에서는 ‘가재도구 되팔기’의 제의적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름판은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한 놀이문화이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제의적인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유형은 이러한 노름판의 제의적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신밟기의 제의적 의미를 놀이로 풀어내고 있다 하겠다.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잡색들이 ‘투전놀이’를 벌인다. 가재도구가 판돈으로 그 기능이 바뀌면서 가재도구의 원래적 의미도 함께 해체 된다. 가재도구가 그 집 공간의 환유라는 사실을 환기 시켜본다면, 이는 기존 집 공간의 해체로 해석된다. 곧, ‘투전놀이’로 인해 공간은 해체, 파편화되어 판돈으로 떠돌며, 소유의 질서 역시 무화되어 놀음의 성패에 따라 무작위로 움직여 나간다. 양반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놀음판을 종결짓고 가재도

- 29) 현지조사 지역은 전남의 벌교읍 대포리, 해남군 북평면 목동마을·송지면 산정마을이다. 대포리에서는 대포수는 하당굿의 제주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지신밟기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목동마을의 경우 대포수가 현식굿의 제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산정마을의 경우 지금은 대포수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지만, 증언을 통해 대포수의 사제자로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제자로서의 대포수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전남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잡색놀음인 도둑잡이는 제의적 죽음을 통해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년의례의 원형을 근간으로 형성된 연희라 할 수 있겠다.

구 일체를 자신이 소유한 뒤, 집주인에게 되파는 행위는 새로운 질서를 집주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집주인이 자신의 가재도구를 되사들이면서 묵은 공간은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새로운 질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재도구 그 자체를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는 투전놀이 그 자체의 놀이적 흥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묵은 공간의 모든 질서를 해체시키는 제의적 난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제의적 본령을 구체화한 놀이라 할 수 있다.

‘가재도구 되팔기’와 연계된 ‘투전놀이’는 공간의 해체와 재편을 위한 의례적 혼돈을 구현하는 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재도구를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는 가재도구 그 자체의 해체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유형은 ‘가재도구를 되판 돈을 판돈으로 한 투전놀이’에 비해 가재도구 그 자체의 해체과정-공간의 통과의례 구조에서 본다면 기존 공간의 해체를 도모하는 전이기(과도기) 의례-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죽림마을의 잡색놀음이 수영과 동래역 보다 제의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민간신앙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지역 잡색놀음이 공간(각 가정에 제한된)의 통과의례를 근간으로 연회되는 것은, 이 지역 지신밟기가 마을굿(당산굿)에서 분화되어 있는 한편, 제의구조가 공동체 제의→가정제의(각 가정의 지신밟기)로 제한되어 연행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지신밟기가 마을굿(당산굿)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의구조가 공동체 제의→가정제의→공동체 제의로 확장되어 시행되는 전통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호남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는 도둑잡이의 경우 그 연희적 특성이, 마을굿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행해지는 지신밟기의 전통과 맞물려 신년의례의 제의성(사제자인 대포수의 죽음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무화시키는 제의적 소거에 다름 아니다.)을 구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5. 나오기

이 글은 부산지역 잡색놀음의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잡색놀음은 제의적 본령에 충실하여 잡색놀음의 원형적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한편, 여타 지역과 다른 극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연희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부산지역 잡색놀음의 연희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잡색놀음을 살펴볼 때, ‘가재도구 되팔기’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연행되는데 각 지역별 사례를 유형화하면 ‘가재도구 되팔기’ 독립적 유형, ‘가재도구 되팔기-투전놀이’나 ‘가재도구 되팔기-소유권 차지하기’ 등 복합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는 신년제의인 지신밟기의 제의적 본령을 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종의 드로메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포수가 가재도구를 총으로 쏘는 행위는 과거의 묵은 액과 묵어 있을 지도 모르는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사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포수가 재액을 물리친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되파는 것은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복합형은 각 지역의 제의적 전통성과 연회적 지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재도구 되팔기-투전놀이’유형은 놀음의 난장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보다 제의성을 강화시킨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재도구 되팔기-소유권 차지하기’은 종래의 제의성에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미하여 보다 오락성을 강화시킨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산지역 잡색놀음에서 진행되는 ‘가재도구 되팔기’는 순환적 시간관에 의거한 신년제의로서의 지신밟기의 의례적 본령을 모의적으로 구현한 극놀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재도구 되팔기는 투전놀이나 소유권차지하기 경합으로 확대되어 한편으로는 놀이의 제의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연행양상은 그 지역민의 연회적 지향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산지역 가면극 형성과정에 대한 전환적 논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잡색놀음은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로 주목되어 왔다. 복합유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산지역 가면극 발원지와 일치하고 있어, 복합유형의 연회적 특성과 가면극 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는 잡색놀음과 가면극과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도 병행하였다.

현전하는 잡색놀이의 연회적 특성은 잡색놀이의 형성과정이기 그러하듯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잡색놀음의 본원적 접근으로서의 제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기능적 접근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하는 바다. 이와 더불어 잡색놀음의 발전적 계승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으나, 연구 대상 선정에서나 연구 방법론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모두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익두, 1998, '한국 풍물굿의 '잡색놀이'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 김해민속예술보존회, 2004, 『김해가락오광대』, 박이정.
- 동래야류보존회, 1989, 『동래들놀이』.
- 민족미학연구소 박진주 선생 자료집 발간위원회, 1999, 『박진주 선생자료집1』.
- 박진태, 1998, '농악대 잡색놀이의 연극성과 제의성', 『한국 민속극 연구』, 새문사.
- 박진태, 2004,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9, 『부산지명총람』 제5권-강서구편-.
- 서연호, 1989, '진주오광대 대본', 『야류·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 정병호, 1994, 『농악』, 열화당.
- 황경숙, 2005, '야류의 형성과정과 연희적 특성', 『한국민족문화』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국문초록】

이 글은 부산지역 잡색놀이의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잡색놀이는 제의적 본령에 충실하여 잡색놀이의 원형적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한편, 여타 지역과 다른 극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연희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부산지역 잡색놀이의 연희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전하는 잡색놀음을 살펴볼 때, ‘가재도구 되팔기’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연행되는데 각 지역별 사례를 유형화하면 ‘가재도구 되팔기’독립적 유형, ‘가재도구 되팔기-투전놀이’나 ‘가재도구 되팔기-소유권 차지하기’ 등 복합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재도구 되팔기’모티브는 신년의례인 지신밟기의 제의적 본령은 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종의 드로메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포수가 가재도구를 총으로 쏘는 행위는 과거의 묵은 액과 묵어 있을 지도 모르는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사의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포수가 재액을 물리친 가재도구를 주인에게 되파는 것은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복합형은 각 지역의 제의적 전통성과 연희적 지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재도구 되팔기- 투전놀이’유형은 놀음의 난장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보다 제의성을 강화시킨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재도구 되팔기-소유권 차지하기’는 종래의 제의성에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가미하여 보다 오락성을 강화시킨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잡색놀음은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로 주목되어 왔다. 복합유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산지역 가면극 발원지와 일치하고 있어, 복합유형의 연희적 특성과 가면극 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는 잡색놀음과 가면극과의 상관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도 병행하였다.

핵심주제어 : 잡색, 잡색놀음, 지신밟기, 가재도구 되팔기, 가면극.’

【중문초록】

釜山地区雜色戲的類型及表演的特征 —以“家財道具回壳”用意為中心

黃京淑

雜色戲是在正初各洞舉行的災難招福儀礼上圍繞各種雜色進行表演的一種戲。雜色作為祝祭人物可以來回于圣与俗之間，並且可以增添戲的神明。

本論文將以最能表現釜山地區雜色戲地域特性的“家財道具回賣”用意為重點，闡述釜山地區雜色戲既體現了祭儀的本質，又很好地保存了雜色戲原有的形態，並且表明釜山地區的雜色戲融入了其他地區和其他戲劇的藝術表現，並形成了自己獨創的表演體系。本論文還將指出重新認識釜山地區雜色戲演藝史的現實意義具有一定的必要性。

現今仍流傳于世的雜色戲中，“家財道具回賣”在不同地區有着不同的表演形式，按地區來劃分的話，具體可分為“家財道具回賣”獨立型、“家財道具回賣”賭錢型、“家財道具回賣”

所有權紛爭型這三種複合類型。“家財道具回賣”的用意是這些類型的基礎，能夠將風物巫法祭儀的本質以戲劇的形式表現出來，具有戲劇的特性。捕手用槍射擊家財道具的行為意味着將過去的厄運和可能有的災難全部掃除，從而達到避邪的目的。將捕手使用過的用來掃除災難的家財道具再賣給以前的主人，這意味着可以從現有的秩序中擺脫出來，進入一種新的秩序。複合型起因于各地區不同祭儀的傳統性和演出的指向性，“家財道具回賣”賭錢型屬於給戲劇增加一定的雜亂度，從而強化祭儀性的一種戲劇類型。“家財道具回賣”所有權紛爭型則屬於在原有祭儀性的基礎上，增添一些社會批判色彩，從而增強娛樂性的一種戲劇類型。

核心語：雜色，雜色戲，家財道具回賣，災難全部掃除，假面劇.’